

광주 아시아문화산업 투자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1호가 운용회사의 등록취소와 적자구조 등으로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1호는 광주시 3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4,000만원, 민자 117억원을 더해 190억4,000만원 규모로 지난 2012년 9월 결성됐다. 5년간 투자한 뒤 이후 2

적자사업 수두룩... 투자조합 1호 청산절차 투자원금 회수 못해 시·문체부 손실 불가피

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투자금 운용은 우리인베스트먼트 측이 맡고, 관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투자 심의·의결과 투자이행 확인 등은 광주시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리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 문화기업 7곳이 광

주로 이전하고 6곳은 창업했으며, 100명 가까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일구었다. 80개 프로젝트에 351억원이 투자되면서 문화기업의 투자난 해소와 우수프로젝트 발굴에도 효과를 냈다. 하지만 적자가 100억원대로 커지면서 광주시는 물론 문체부의 손실도 우

려되는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율도 14%에 그치고 있다. 투자비율대로 회수금을 배분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나 문체부나 혈세를 전액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업체는 위장폐업 후 명칭만 바꿔 새로운 회사로 운영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도 2012년 11명었던 것이 이듬해 44명으로 4배나 급증했으나, 이후 2014년 25명, 2015년 14명으로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었다.

투자운용사인 우리인베스트먼트 측이 주식 26만주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등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조합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점도 관리부실과 책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사의 잘못으로 일이 회이게 됐다”며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청산을 서둘러 마무리 짓기 위해 조만간 문체부, 시, 진흥원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시,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 발대식

안전문화 3·3·3운동, 안전신문고 홍보활동 등 전개

광주시는 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40여개 시민사회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 유적원생의 안전동요, 위축장 수여, 안전관리현장 낭독, 심폐소생술 시연, 정중재 행정부시장의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특강, 풀뿌리 안전문화 3·3·3운동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재난안전추진단은 광주시가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안전사고 ‘ZERO’화로 선수단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안전문화 붐 조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연합회 등 4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재난안전추진단에 참여해 풀뿌리 안전문화 3·3·3운동과 안전신문고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평형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민선 7기를 맞아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 발대식을 계기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부터 작은 안전문화 실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 발대식’에서 정중재 행정부시장과 민간 위원장 등이 풀뿌리 안전문화 3·3·3운동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한전, 공대 설립의지 확고”

이현빈 단장, 나주시장 만나 ‘지연·축소 논란’ 일축

한전이 최근 설립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한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영업이익 적자에 따른 공대 설립시기 지연과 규모 축소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초 계획인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공정화를 통해 공대설립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간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공대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고, 공대설립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검토한 수준”

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대해석 자체를 요청했다. 이 단장은 “개교시기에 맞춘 원활한 공대설립을 위한 비용, 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는 설립 지연이나 규모 축소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한전과의 논의체널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전공대 입지는 연구대학 중심의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해야지, 지자체간 무리한 입지 경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신종희 기자

중국 조이롱차 광주 투자유치 무산?

시, ‘지방비 보조금 심의’ 무기한 연기... “투자의지 재확인”

광주시가 전기차 양산을 약속한 ‘조이롱 코리아’에 대한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이행여부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투자협약을 한 중국 조이롱자동차 측이 구체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감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 계획이었던 조이롱코리아 E6 전기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6일 조이롱 측이 광주에 전기차 판매 시 조건부 제시한 시비 보조금 이행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었다. 시는 조이롱의 미니 전기버스(E6)에 해당 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다만 조이롱 측에 서비스센터 3곳 설

립, 대당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차량 가격변동이 5% 내외를 넘지 않을 것, 충분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에 조이롱 측은 최근 공문을 보내 차량 가격을 1억4,500만원으로 확정하고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 등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이롱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광주시가 E6 판매에 따른 보조금 심의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투자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조이롱 측이 투자의지를 밝히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만큼 투자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이롱은 2016년 3월 2,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양산설비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E6를 2,000대씩 생산하겠다는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했다. 협약체결 후 조이롱은 먼저 완성차를 팔아보고 시장성에 따라 공장설립 계획을 세우겠다는 미끼를 미뤘었다. 특히 조이롱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판매 관련 협의를 하는 등 공장설립보다는 중국에서 만든 차를 들여와 판매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이롱 측이 전기차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공장설립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투자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이행여부 심의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투데이뉴스

행안부 차관, 행정혁신 현장방문 광주시 우수사례 성과 확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광주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현장인 광산구 ‘차타GO 민원GO센터’와 풍암초교 앞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구축현장을 방문했다. 심 차관은 이날 첨단2동주민센터 ‘차타GO 민원GO센터’와 올해 상반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구 풍암초교 앞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구축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지역특성에 맞게 교통안전 시설물을 표준화 것으로, 지난 3월 풍암초교와 효동초교에 시범운영한 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설치요로 올 하반기 6개 초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에 이어 열린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교차로에 노란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 차관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지방행정 혁신이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가뭄대책 용수개발 7억 투입 동병 설치 등 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억원(국비 6억, 시·군비 1억)을 추가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나주 등 9개 시·군 96.5ha에서 단감, 인삼, 콩, 고구마, 고추 등이 햇볕 탔, 조기낙엽,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농작물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사업비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동병 설치, 양수기와 스프링클러 시설, 살수차 운영 등에 쓰인다.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중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농민들께서도 물 아껴 쓰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기초의원에 듣는다

“사람 중심 공동체 만들기 앞장” 윤혜영 광산구의원

“다양한 연령과 문화를 가진 광산구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윤혜영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사람중심, 더 따뜻한 광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수준이 높아지고 구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분석을 통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광산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에 힘쓰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해 의회 위상을 높여겠다”며 “동료의원들과 화합하고 공부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복지의 첨병으로 주민 곁에서 묵묵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한 광산 만드는 밀알” 조상현 광산구의원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목소리에 응답해 행복한 광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조상현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린 소통과 의원의 직무에 전념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 의원은 “광산구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관이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구민의견이 지역정치에 전달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참다운 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산구민과 수완동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작은 힘이지만 행복한 광산구와 수완동을 만드는 밀알이 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 편에서는 따뜻한 정치” 김미영 광산구의원

“소중한 표를 주신 광산구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구민 편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미영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좋은 정치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해 주민의 고충처리자·조정자·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내 아이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겠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의정활동에 목표를 두고 조례안 제정 등 입법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살고 싶은 광산,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주민에게 감동의정도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소신으로 합리적 대안” 박현석 광산구의원

“기초의원은 지역을 잘 알고 주민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현석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정당당파원칙과 소신으로 오직 주민만을 위한 광산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며 “투명한 회계, 합리적 정책수립, 주민제안형 조례제정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주민자치위원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얻은 주민과의 소통을 심본 활용해 늘 현장에서 만나는 의원이 되겠다”며 “이웃이 반갑고, 정이 넘치고, 함께 잘 사는 광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영봉 기자